

2026년 6월 4일

Hana FX Daily Letter

밀려드는 중동發 고유가 충격

하나은행

외환파생상품영업부
이유정 연구원

달러/원 전망 및 동향

- **금일 전망 :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글로벌 강달러와 위험회피 심리에 상승**
daily range 예상: 1,520~1,535원

■ 이란의 쿠웨이트 공습 등 중동 지역 내 긴장감이 확산되며 국제유가가 상승. 여기에 미국의 고용 관련 지표와 서비스업 PMI 등이 예상을 웃도는 호조세를 보이고,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자 금리인상 경계감이 높아짐. 이에 따른 달러 강세와 위험회피 심리에 금일 달러/원 환율은 큰 폭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외국인 자금의 국내 중시 이탈 가능성 역시 환율 상승을 견인할 전망. 다만, 고점 인식 속에 유입될 수출업체 매도물량과 당국 속도조절에 대한 경계심리는 상단 제한할 요인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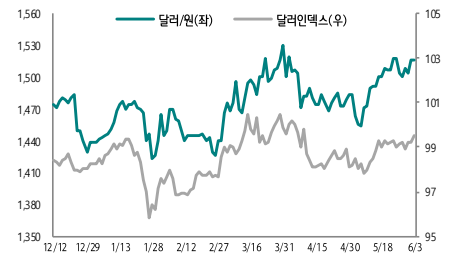
■ **전일 동향 : 2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대비 12.1원 오른 1,516.4원에 마감**
미-이란 협상 중단 우려로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되면서 7.7원 상승한 1,512.0원으로 출발. 장중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6조원 넘게 이탈하자 1,520원선 터치, 이후 수출업체 매도물량 유입 등에 1,510원대 중반에서 주간 거래를 마감. 이어진 야간장에서는 중동 협상에 대한 의구심 지속됨에 따라 1,519.0원으로 상승 마감
국제 통화시장 이야기

- (달러인덱스) 중동 불안 고조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미국의 고용, 서비스업 등 주요 경제지표까지 호조를 보이자, 연준 긴축 우려가 커지며 달러는 강세를 나타냄
- (유로-달러) 미-이란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며 에너지 가격 오름세가 지속된 가운데, 유로존의 경기 하방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유로화는 약세 압력을 받음
- (달러-엔) 일본 재무상과 다카이치 총리의 구두개입에 이어 우에다 BOJ 총재까지 매파적 발언을 쏟아냈지만, 엔화 약세 이어지면서 결국 160엔선을 돌파

하나에서 전해주는 FX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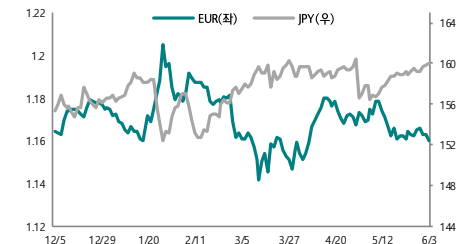
- 최근 발표된 우리나라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대비 3.1% 상승하며 지난 '24.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석유류 물가가 24.2% 급등한 영향이 컸는데, 이는 러-우 전쟁 초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최근 열린 BOK 컨퍼런스에서 한은 총재는 우리나라의 경우 통화정책 운신의 폭이 크기 때문에 효과적인 인플레이션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함. 이에 대한 근거로 한국 역시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가격 충격에 민감하지만, 국내 성장이 상대적으로 견고하게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음. 아울러 지난 5월 금통위에 이어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환율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하며 금리인상 필요성을 재차 시사했음. 게다가 총재가 강조했던 생활물가지수 역시 5월 3.3%로 높아진 만큼, 다가오는 7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 한편, 이달 개최될 FOMC 회의는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이 주재하는 첫 회의인 만큼 관심이 뜨겁지만, 미국 내 끈질긴 물가 상황과 연준 내부의 매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완화된 메시지가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 이는 글로벌 달러 강세를 자극할 요인이 나, 한은 역시 매파적 기조로 돌아선 만큼 원화에 미칠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원화 환율 추이



구분	시가	15:30 종가	02:00 종가	NDF
달러/원	1,512.0	1,509.0	1,516.4	1,533.2

주요 통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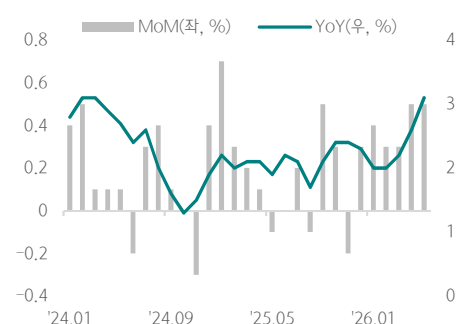
구분	EUR/USD	USD/JPY	USD/CNH
종가	1.1597	160.05	6.7793
전일대비	-0.0034	+0.16	+0.0174
재정환율	1,758.62	947.34	223.67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시간	지표	예상	이전
18:00	유로존 4월 소매판매(MoM)	-0.3%	-0.1%
21:30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215k	215k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연설

한국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투자 등 금융거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본 정보는 상품 가입 권유 및 유인 목적이 아닌, 고객 앞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